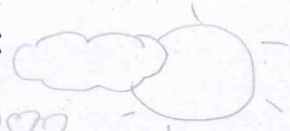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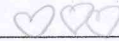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제목 : 놀이터 < 2학년, 4반 > ㅋㅋ



동생과 함께 놀이터를 다녀왔다. 그네를 탔는데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화가난 사람도 모두

그네를 타면 모두 기분이 좋아질거같다.

그네를 밧을 줄리면 앞으로 나가는게 신기

하다. 정글집은 높이 올라가면 너무 무섭다. 율도

인내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딱히 즐겁진 않았다.

8 실은 잘 탔는데... 너무 민망했다. 미끄럼틀

악어놀이도 했다. 해는 빙법 : 악어가 미끄럼틀 아래에

악물건을 잡고 자다가 우리가 다가오면 깨서

악처럼 올라간다. 위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말고

움직일 경우 주의 사항 △ 움직일 경우엔 슬래가 자기로 하

귀게 될수 있다. 원래는 "이채원" 이라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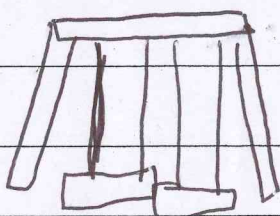
와 놀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었다.

조금 속상했다. 그렇지만 동생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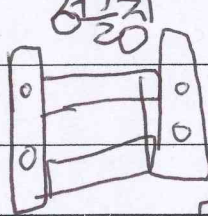
아주 즐겁 ~ ~ ~ 재미 있게 놀았다.

꼭 어린이날 처럼 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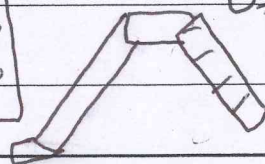
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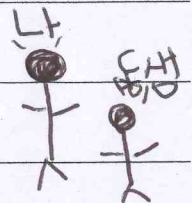
정글집



미끄럼틀



나



동생

